

KISTEP 통계 브리프 2006-1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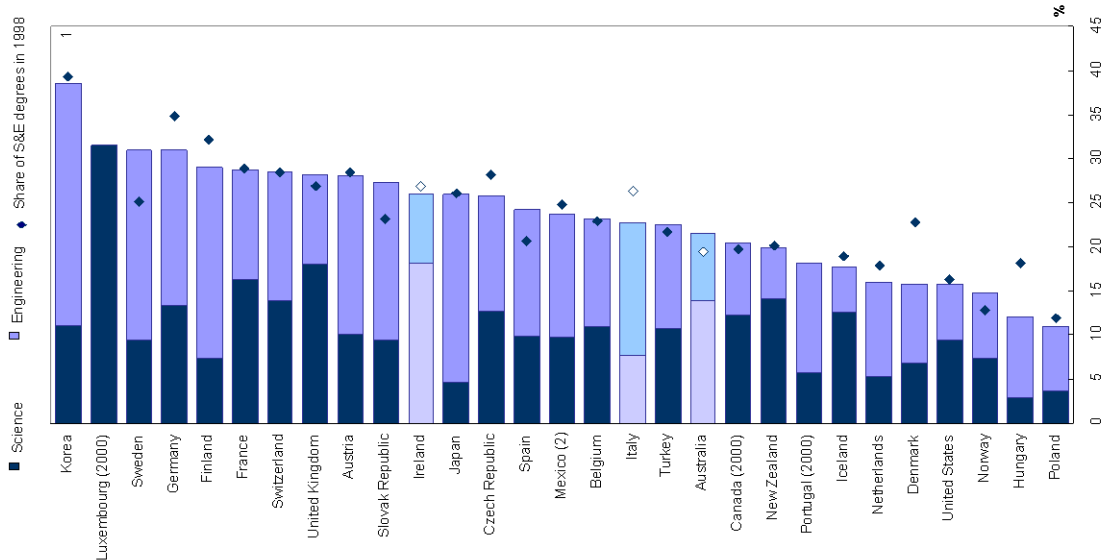
OECD 국가의 R&D 인력 배출 현황 분석



□ OECD 국가의 이공계 인력 배출 현황

-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공계 인력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
 -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중 이공계 학위 취득자 비율은 38.6%(’03년)
 - 특히 공학 분야 학위 취득자 비율은 27.5%로 매우 높은 수준
- OECD 국가 전반적으로는 이공계 인력 배출 비중이 감소 추세
 - 독일: 34.8% (’98년) -> 30.9%(’03년), 핀란드: 32.3% (’98년) -> 29%(’03년)
 - 스웨덴, 영국, 노르웨이 등은 이공계 인력 비중 증가국

<그림 1> 이공계 인력 배출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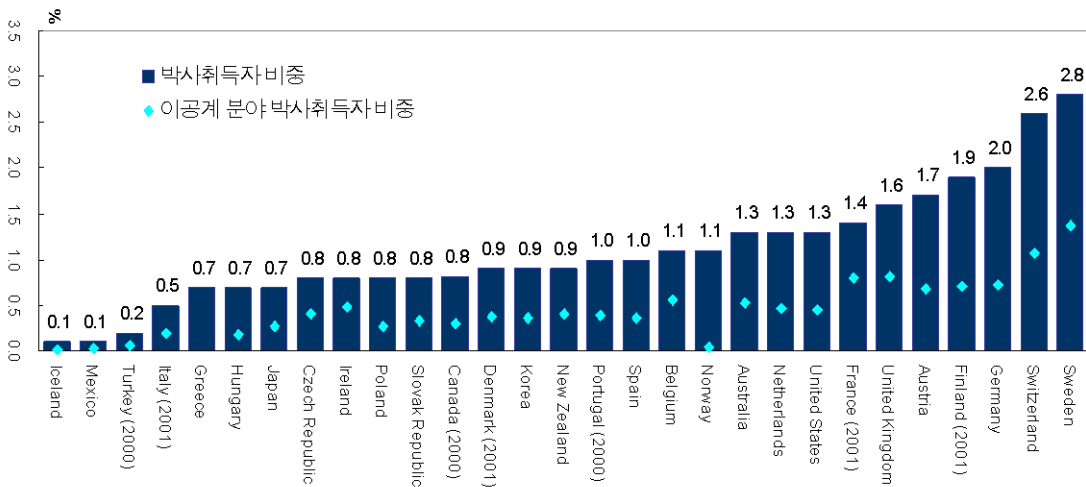
자료원 : OECD, Science,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, 2005

| 국 가 | 이공계 학위 비중(% , '03) | 이공계 학위 취득비중(%) | | 이공계 학위 비중(% , '98)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이화학위 취득비중(%) | 공학학위 취득비중(%) | |
| 한국 | 38.6 | 11.1 | 27.5 | 39.2 |
| 스웨덴 | 31.0 | 9.3 | 21.7 | 25.2 |
| 독일 | 30.9 | 13.3 | 17.6 | 34.8 |
| 핀란드 | 29.0 | 7.4 | 21.6 | 32.2 |
| 프랑스 | 28.7 | 16.2 | 12.5 | 28.9 |
| 스위스 | 28.5 | 13.9 | 14.6 | 28.4 |
| 영국 | 28.1 | 18.1 | 10.1 | 26.9 |
| 아일랜드 | 25.9 | 18.2 | 7.7 | 26.9 |
| 일본 | 25.9 | 4.7 | 21.2 | 26.0 |
| 이탈리아 | 22.8 | 7.7 | 15.2 | 26.4 |
| 캐나다 (2000) | 20.4 | 12.2 | 8.2 | 19.8 |
| 미국 | 15.7 | 9.4 | 6.3 | 16.2 |

□ 이공계 박사인력 배출 현황

- 우리나라의 청년인구 중 박사인력 배출비중은 0.9%로 OECD 평균보다 낮음
- 특히, R&D 전문 역량을 갖춘 이공계 박사인력 비중은 선진국 및 기술 강소국에 비해 낮은 편
- 우리나라의 청년인구 중 이공계 박사 취득자의 비중은 0.4% ('03년)
- 스웨덴(1.4%), 스위스 (1.1%), 영국 (0.8%) 등보다 낮은 수준

<그림 2> OECD 국가의 박사인력 배출 현황



자료원 : OECD, Science,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, 2005

| | 박사취득자 비중 | 이공계 분야의 박사 취득자 비중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이탈리아 (2001) | 0.5 | 0.2 |
| 일본 | 0.7 | 0.3 |
| 아일랜드 | 0.8 | 0.5 |
| 캐나다 (2000) | 0.8 | 0.3 |
| 덴마크 (2001) | 0.9 | 0.4 |
| 한국 | 0.9 | 0.4 |
| 뉴질랜드 | 0.9 | 0.4 |
| 포르투갈 (2000) | 1.0 | 0.4 |
| 스페인 | 1.0 | 0.4 |
| 벨기에 | 1.1 | 0.6 |
| 네덜란드 | 1.3 | 0.5 |
| 미국 | 1.3 | 0.5 |
| 프랑스(2001) | 1.4 | 0.8 |
| 영국 | 1.6 | 0.8 |
| 핀란드 (2001) | 1.9 | 0.7 |
| 독일 | 2.0 | 0.7 |
| 스위스 | 2.6 | 1.1 |
| 스웨덴 | 2.8 | 1.4 |

□ 시사점

-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이공계 분야의 인력 양성 및 배출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임
 - 전문학사급 이상 이공계 학위 소지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
- 반면, R&D 수행을 위한 핵심 전문인력의 배출은 OECD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, 연구인력 중 박사인력의 비중은 감소 추세
 - 연구인력 중 박사인력 비중은 '99년 31.3%에서 '04년 26.9%로 감소
- 향후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R&D 인력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박사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한 질적인 연구 역량제고가 필요함

* 다음호는 “OECD 국가의 박사인력 유동성 분석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임

* 자료관련 문의: 기술혁신지표팀 (02-589-2829)